

아봐타의 깨달음을 창조하는 방법

해리 팔머

보다 높은 의식에 대해 당신은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요?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이 아봐타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속임수들을 거쳐왔는지를 말해 줍니다. 70년대는 선의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참으로 별난 영적 속임수들로 가득 찬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함에 있어 대중의 주의를 끌기 원하는 비정상적인 정신적 집착에 빠져 대중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려는 이른바 “영적 스승” 들에게 순복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씨클 안에서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행동이 그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잘못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깨어난 관점에서 인간의 개의식을 관찰할 때는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영적 구도의 길은 중독성의 자기 파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들 중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저 누군가의 개인적 사업체이며 또 어떤 영적 구도의 길은 교의주입을 통해 낡은 신념체계가 그저 한 세대에게 전해집니다-그것은 그룹의 입장과 동의 하는 면에서는 예고를 충족시킬지는 모르나 개인적으로는 힘과 권한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이와 같은 영적 구도의 길은 막다른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희망과 척하기가 참된 깨달음을 대신하게 되었고, 종결에는 실망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UFO의 유괴, 범 지구적 음모, 영매 등 괴상한 활동들까지도 그 도의 길의 반열에 끼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보여 주는 확실한 멧세지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망이 없다” 입니다. 그러기에 회의론이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구도에 대한 인기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고 비지니스를 위한 신사복의 판매 실적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보다 더한 것은 영적 구도의 행각이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심리적 상태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8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 안에서는 아직도

순수한 영적인 울림이 퍼지기는 했지만 주류를 이루는 조성위원들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움직임들을 경시하려 애를 썼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종하고 협상하려는 의도는 어렵פות한 깨달음보다 더 희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후에서 당신은 아직도 영적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개의식을 넘어 깨어난 의식-끝내 반박할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답을 내릴 수 있는 비공간을 의식하는 상태-의 중독성 없는 순수한 경험으로 이끄는 열쇠를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찾음이 바로 아봐타의 시작이지요. 이것에 대하여는 “뜻대로 살기” 라는 책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봐타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아봐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결론, 결정, 동의(자기 삶을 구성하는 것들) 등을 아주 짧은 시간에 구별하여 그것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일련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정신 편집기술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 도구를 묘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봐타는 극도로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봐타가 초래하는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 도구를 찾으면 그것을 꼭 사용합니다.

최초의 놀라움이 있은 후 아봐타 수강생들은 편안히 가라앉고 자신의 태도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한계,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쓰디쓰게 만드는 적개심을 체계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가 정말로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개인적인 동기를 창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개의식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의 물질현실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아봐타를 실시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듣고 또 시험삼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봐타를 수료한 사람들의 성공담들이 아봐타 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성취하거나 경험하거나 또는 창조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봐타 수료생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듣고 아봐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며 또 실용적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특별한 요술주문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강한 충동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봐타 도구를 배우는데는 매우 실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성공.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아봐타는 그 사람에게 성공하는 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추구했던 모든 존재가 가져 왔던 의문,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왜 인생이란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저 이 글을 읽기를 멈추고 지금 당장 아봐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봐타 수료생들에게서 일어나는 아주 미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 이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불과 며칠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몇 년씩.

이런 ‘변화’ 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만족(satiation)’ 입니다. ‘만족’ 이라 함은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켜 실컷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욕망 하던 대상을 의도적으로 갖게 되고 경험하고 창조한다면 그 결과는 집착이나 중독이 아니라 ‘만족’ 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공한 사람들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콜릿을 입힌 체리를 몇 개나 먹을 수 있는가? 전례없는 최고의 기분을 얼마나 더 느끼기를 원하는가? 돈은 얼마나 더 있어야 충분한가?

어느 정도의 성공이 만족한 성공인가? 농담이 섞인 대답은 “조금만 더” 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만족’ 을 느끼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봐타 없이 그 시점에 이르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두 번째 양상은 자신의 욕구를 창조 해 내는 결론, 결정, 동의 등을 발견하는데 아봐타도구를 능수 능란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통찰은 바로 아봐타도구를 가지고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불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까지도

거기에는 성취자, 구도자, 통치자, 지지자를 깨어난 탐구자가 되게하는 어떤 ‘변화’ 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아봐타수료생들로 하여금 초개인적인 가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깊은 개 의식 수준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그들은 한 때 그저 결론과 결정 그리고 동의가 자아 내던 또 하나의 정신적 형태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경이 드넓게 펼쳐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난 관점에서 인간의 개 의식을 관찰할 때는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지요. 음미 감성이 판단 분별을 대치합니다. 도와주는 기쁨이 경쟁을 대신합니다. 동정심이 적개심을 대치합니다. 배움과 진화가 불관용을 대신합니다.

궁극에는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추구했던 모든 존재가 가져 왔던 의문,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왜 인생이란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봐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앎’ 이란 잊혀진 사회적 교의주입이나 굶주린 에고의 아이덴티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어렵פות한 직감적 자극입니다(직감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며 기꺼이 순복하기를 기다려 준다는 뜻에서 어렵פות하다는 것입니다.) 아봐타는 밝은 지구문명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의 놀라운 은혜로 그 느낌을 유지합니다.